

서울본사, (주)경호 진천공장, (주)원지산업, (주)한선 안양 공장, 협동화학(주) 군포공장 등을 방문했다.

한편 일본 시찰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간 포장 재료 등 포장관련 전반에 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백판지수출 상승가

주문늘어 14%상승

백판지의 수출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대한필프, 신평제지, 세림제지 등 백판지 업체들은 지난 4월부터 홍콩,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부터 백판지 주문이 늘자 수출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에따라 백판지의 톤당 수출가격이 지난해말의 490달러(C&F홍콩기준)에서 지난3월엔 520달러, 4월말엔 560달러까지 올라 4개월 사이에 14.3%가 올랐다.

또 업체들의 주문확보량도 평균 2~3개월 작업분에 달해 지난해의 1개월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주문이 늘고 있는 것은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수출경기가 살아나면서 각종 수출품의 포장지로 쓰이는 백판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상대국이던 일본이 엔고로 경쟁력을 잃어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것도 한국으로 주문이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필프의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주문이 늘고 있으나 한정된 생산능력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국내공급에 차질을 빚게돼 수출물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건이 좋은 오더를 선별적으로 받고 있어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판지는 국내업체들이 연간 85만톤을 생산해 이 가운데 약 40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신문용지, 인쇄용지 등을 포함한 전체 지류수출의 70%(물량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필프, 제지업 참여 연기

시장상황 고려 96년이후로

동해필프(대표 심영섭)가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제지(인쇄용지) 사업을 1~2년 늦추기로 했다.

동해필프는 최근 주주사들과의 협의와 이사회를 거쳐 당초 95년 8월경부터 개시하기로 한 인쇄용지 생산을 96년이후로

늦추기로 확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늦어도 97년 8월 이전에는 생산을 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동해필프는 백상지 생산을 위해 이미 설비 발주계약이 끝난 스미토모발맷사 및 핀란드의 발맷사와 기계설치를 최대한 2년 늦추기 위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설비 제작업체인 발맷사는 동해필프의 사정을 감안해 당초 계약한 설비인도시점을 최대한 2년간 위약금 없이 연장해 주기로 타협했으나 설비발주를 늦출 경우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격조정을 요구해 막바지 접촉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필프가 백상지 사업개시 시점을 이처럼 늦추기로 한 것은 지난 수년간 필프가 급락에 따른 누적손실에다 대주주였던 계성제지 및 계열사들에 공급한 원료가격이 이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동결돼 자금사정이 다소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인다.

한솔, 동창제지 180억에 인수

동창의 기업인수요청 받아들여

봉명그룹계열 동창제지가 한솔제지(대표 구형우)에 인수됐다.

동창제지는 지난달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대주주인 이세무, 이정범씨 소유주식 51만3천1백38주(18.48%)를 한솔제지에 20만5천77주(10.27%), 한솔무역에 14만2천5백38주(5.13%), 한솔유통에 8만5천5백23주(3.08%) 등 3개사에 모두 180억원에 양도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상품포장용 백판지 제조업체인 동창제지는 같은 봉명그룹 계열사인 도투락에 지급보증을 썼다가 도투락이 파산하면서 지난 2월4일 부도를 낸 후 한솔제지에 기업인수 요청을 한 바 있다.

한솔, 경쟁사에 기술제공

제지 수준높여 수출산업 유도

한솔제지(대표 구형우)가 국내 제지경쟁사에도 첨단기술을 제공한다.

한솔제지 구형우 사장은 국내 제지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올려 수출산업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경쟁업체에도 기술제공에 나서기로 회사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지난해 인도의 쉬리크리쉬나사에 10년간 순매출액의 4%를 받는 조건으로 감열지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등 해외에 기술수출을 해왔으나 제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선 기술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인쇄용지와 신문용지 제조기술, 제지공정설계기술, 폐지재활용기술, 환경관련기술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기술제공방식은 고급기술은 로열티를 받고 대중화된 기술은 무상제공하는 등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솔이 이같이 국내업체에 기술제공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관련업체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의 종이수요가 급증, 앞으로 수년간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솔은 지난해엔 국내제지업체 회장과 사장들을 초청, 전주 신문용지공장을 견학시켰고 신문용지업체인 대한제지 기술자들을 초청해 환경관련 기술을 지도하기도 했다.

태국에 신문지공장 준공

신호그룹, 연12만톤 생산

신호그룹은 태국 방콕에서 합작기업인 신호타이사 생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다.

신호타이는 한국이 설립한 첫 해외 신문용지 공장으로서 방콕 인근 심부리단지 10만평 부지에 연산 12만톤 규모이다.

신호타이는 이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갖고 이윤용 전 한창제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강화골심지 양산

한국수출포장, 월 3천5백톤

골판지 생산업체인 한국수출포장(대표 허용삼)이 지난해말 개발한 강화골심지의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4월초부터 양산에 들어간 이 골심지는 종이상태에서는 유연하지만 박스로 제조했을 때는 기존 제품보다 25%정도 강도를 높여주는 고강도 골심지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고강도 골심지는 제조시 합지기의 속도가 떨어져 생산성이 감소했으나 이 제품은 일반 골심지제조와 같이 기계속도를 상승시켜도 무리가 가지 않고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내용물 보호가 중요한 과실류 포장이나 경공업

제품 박스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출포장은 지난 4월30일 시화공장의 준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시화공장은 이 회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물량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물류비의 증가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호그룹, 구동독 제지업체 인수

독일거점 유럽진출 본격화 계획

신호그룹(회장 이순국)이 캐나다 업체와 공동으로 구 동독 지역의 제지업체인 '드레스덴 파피에르' 사를 인수했다.

신호그룹 계열인 동신제지는 최근 캐나다의 기업인수 전문업체인 머서사와 공동으로 드레스덴 파피에르사를 인수키로 독일 신탁관리청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인수금액 2천1백5만마르크(약 1백억원) 가운데 머서사가 70%, 동신제지가 30%를 투자키로 했으며 동신제지는 해외 현지법인인 신호캐나다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드레스덴 파피에르의 경영과 관련 동신제지는 생산설비관리, 판매유통, 조직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고 머서사는 대독일정부 관계와 은행업무 등을 분담키로 했다.

드레스덴 파피에르는 8개의 공장에서 백상지, 벽지원지를 중심으로 아트지, 인쇄용지, 골판지, 라이너지 등 각종 종이류를 연간 27만톤 생산하는 종합 제지업체이다.

동신제지는 드레스덴 파피에르 인수를 통해 독일시장을 거점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동신제지는 기존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신호그룹의 기술, 경영력 등을 현지에 적용함으로써 드레스덴 파피에르를 단시간내에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콘덴서 포장용 BOPP 필름설비 증설

삼영화학, 내년 완공되면 국내 최대생산

삼영화학그룹(회장 이중환)은 250억원을 투입해 콘덴서용 BOPP(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필름 생산설비와 포장용 BOPP필름 생산설비를 대폭 확대한다.

삼영화학에 따르면 콘덴서용 BOPP필름부문에 130억원을 투입,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연산 4,000톤 규모를 5,2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계열사인 삼영산업은 120억원을 투입해 포장용 BOPP필름 시설을 5월 완공목표로 연산 22,000톤 늘어난 35,000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영화학공업은 지난 89년 세계에서 5번째로 콘덴서용 PP(폴리프로필렌)필름의 개발에 성공, 양산을 시작했는데 이번 증설로 두께 3.5~15mm의 초박막 필름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증설이 완료되면 세계 3위의 콘덴서용 BOPP필름 생산업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포장용 BOPP필름 설비의 증설이 완료되면 삼영산업은 국내 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고품질 박막필름의 생산으로 국내 연포장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영화학그룹은 이번 증설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운송·포장 등 협력사 통합협

포철, 전문성 제고·비효율제거 겨냥

포항종합제철(회장 김만제)은 제철소내 운송·제품포장·설비수리 등 부대작업을 수행하는 협력회사들의 상호 통폐합을 유도, 협력회사를 분야별로 일원화하는 등 협력작업의 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포철의 협력사는 현재 포항 30개사, 광양 22개사 등 모두 52개사이며 연간 4,000억원(93년 4,465억원) 이상을 운송비, 수리비, 포장비 등으로 이들에 지불하고 있다.

포철은 유사작업을 여러회사가 나누어 맡는데 따르는 전문성 저하 및 작업의 비효율을 방지, 협력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협력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협력작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철은 이를위해 우선 협력작업과 무관한 분야로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 경영구조가 방만해진 삼풍공업, 성림기업 등 일부업체를 협력회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제철소내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협력회사도 현재의 포항 9개사, 광양 3개사에서 각각 2개사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플라스틱가공 사출기 증설

럭키, 울산공장내 최대 규모

럭키(대표 성재갑)는 최근 3천톤급 초대형 플라스틱가공 사

출기 2대를 울산공장 내에 증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출기는 국내 최대규모이며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각종 플라스틱 부품의 생산이 가능하고 연간 1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포장건어물 실량미달 많다

조사대상 65%가 표시보다 적어

소량으로 포장돼 판매되는 건어물 제품의 절반이상이 실량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는 17개사 38개 품목 114개 제품의 소포장 건어물을 수거, 실제량과 표시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시량보다 실량이 부족한 제품은 74개로 조사대상 114개의 63.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적 허용오차인 3%이상이 부족한 제품은 세반유통 반월점에서 판매되는 갈게 썬 오징어, 엘지마키에서 판매되는 건멸치, 백새우 등 18개 제품이었다.

시민의 모임은 영세업체가 포장해 수퍼 등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건어물류나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직접 포장, 판매하는 경우 모두 실량이 부족한 제품이 많았다고 밝히고 정확한 계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어물류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많았으며 유통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산유리 시화1공장 완공

유리식기 하루 35톤 생산

유리병·유리식기 생산업체인 두산유리(대표 남궁혁)가 경기도 시화공단내 유리식기 신공장 1단계 제1공장을 최근 완공, 고급 와인잔 등 유리식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두산유리는 시화공장내 일산 35톤 규모의 유리식기공장을 착공하여, 1년4개월만에 완공, 지난 4월18일 용해로 화입에 이어 지난달 1일부터 양산에 나섰다. 시화1공장 완공에는 모두 100억원이 투입됐다.

두산유리는 시화 유리식기 제1공장 완공에 이어 일산 100톤 규모의 제2공장 건립을 하반기중에 착수, 내년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화 신공장 1~2단계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이 회사는 기존 경기도 군포공장과 전북 군산공장의 유리식기 생산라인은 가동을 중단하고 시화공장으로 이들 설비를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제2공장 건립에는 3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화 제1공장 완공으로 두산유리는 식기사업부문에 서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30억원, 내년에는 70억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청우화학 시화공장 준공

건평 298평으로 확장이전

청우화학(대표 노석환)이 지난 4월 30일 시화공장 준공식을 갖고 시화공장 시대를 열었다.

청우화학은 1981년10월 회사를 창립하여 연포장관련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공장의 협소로 이번에 시화공장의 부지를 마련,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 공장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을 마치고 안양공장에서 지난 2월26일 이전한 바 있다.

새로 준공된 청우화학의 시화공장은 대지 560평에 건평 298평의 현대식 건물로 각종 설비를 갖추고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청우화학의 발전에 공이 큰 창익건설(주), 대성화학기계(주), 일진엔지니어링(주), 금목건축(주)가 공로패를 받았다.



▲ 청우화학은 지난 4월 30일 시화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삼풍화학 전화번호 변경

PP, PE필름의 생산 및 가공에 주력하고 있는 삼풍화학(주)(대표이사 김영학)의 공장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또한 무역부를 제외한 서울 사무소의 전 부서를 공장으로 이전해 경영혁신을 도모키로 했다.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에 소재한 삼풍화학의 변경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전화:(0351)61-0421/6, 팩스:(0351)62-5576

서울국제화학플랜트전 성황

국내외 첨단기술 한자리에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회장 장근수·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주최한 서울국제화학플랜트전시회가 지난 4월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플랜트엔지니어링, 화학기기·환경기기·계측·제어기술 등 13개국 168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의 화학플랜트 및 소재, 적용제품이 전시되는 등 첨단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시기간에는 '촉매를 이용한 환경오염 방지기술', '석유화학산업에서의 공정개발사례' 등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기술의 이론과 함께 제품의 특성 및 적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높은 참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림산업(주), 동양화학 등 참가사별로 회사 및 제품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등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쳤다.



▲ 서울국제화학플랜트전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 열려

환경오염 방지기술 소개·보급의 자리

제16회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이 지난 4월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동안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환경보전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방지기술 향상 도모와 국내의 우수기술 소개·보급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의 환경오염방지기기 제조업체 및 관련 부품업체 51개사가 참가했고, 국제행사로 외국 우수환경 관련 업체 87개사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전시회를 통해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기기와 약품·부품들을 전시함으로써 국제 환경산업의 현황과 성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참가 국가들의 정보교류와 선진기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올해에는 새로운 환경기술 및 설비들이 대거, 출품되어 청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배출시설 업체들이 환경오염방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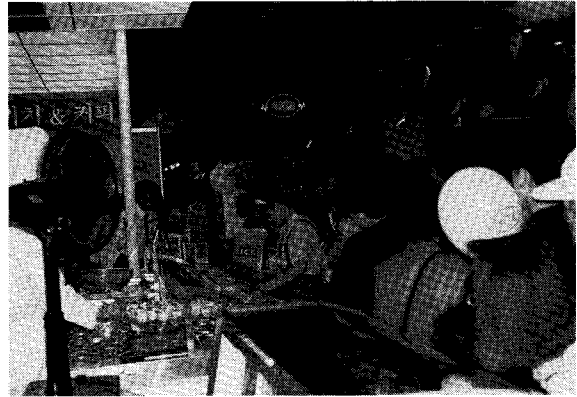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미국과 호주 등 선진환경기술국들의 참가가 많아 외국기업들이 국내 환경시장의 판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의 해결이라는 것과 맞물려 전시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

서울국제식품전 성공적 개최

16개국 330개업체 참가



▲ 서울국제식품기술전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관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한 94서울국제식품기술전이 4월26일부터 30일까지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국에서 33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전시품목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주류, 음료, 식품가공기기, 포장기자재, 요식, 주방기기 및 식품관련 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이었다.

국내에서는 15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농협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한국농림수산물 수출전시관이 별도로 설치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산 농림수산물제품의 전시홍보를 통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한 110명 규모의 전시관에는 52개의 중소기업체들이 호박죽 등 500여 품목을 출품, 해외바이어들을 상대로 수출상담을 벌였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시회 첫날인 26일 오후 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 가공식품의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제3회 국제재생산업전시회 개최

기술교류·개발촉진 등 재생산업의 장 마련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김창제)는 국내외 재생업체간 기술교류 및 기술개발 촉진으로 재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제3회 국제재생산업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92년부터 매년 개최, 올해로 3번째인 이번 전시회는 국내 폐기물재활용 관련기기 제작업체 및 재생제품 생산업체 55개사, 외국의 19개사에서 400여점이 출품됐다.

국제 재생산업전시회는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기기 및 제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재생업체간 기술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시장확대와 활성화의 기초적 붐을 조성함은 물론 국내 폐기물 재활용체계 확립과 국내의 재생업체간 기술교류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폐기물재활용 등 분야에서 재활용품 압축기, 폐기전제품 및 대형 쓰레기 파쇄기, 이동소각로, 음식폐기물 퇴비화 기계, 건설폐재 재생설비, 페스티로폴 용융기, 페타이어 재생제품 등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관련기기 및 설비들이 다양하게 출품됐다.

또한 외국 기업들의 국내 재생산업 시장의 판로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국내 유일의 재생산업전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가 커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전시관내에 공사 홍보관을 운영, 국내 다양한 재생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재생제품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폐기물 유통정보 및 재생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관리기금 융자지원 업무안내 등 폐기물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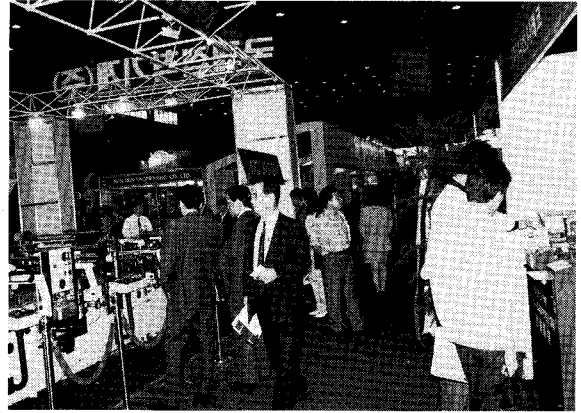


▲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국제재생산업전시회

제2회 국제포장재생산 및 공정기술전 열려

포장산업의 세계시장흐름 파악에 일조

제2회 국제포장재생산 및 공정기술전이 지난 4월 26일부



▲ 국제포장재 생산 및 포장공정기술전

터 29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에서 열렸다.

월간 포장산업(대표 김청)과 경연전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세계 14개국 133개업체가 참가하여 세계의 포장산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품목들을 보면 포장용 플라스틱, 종이, 판지생산설비, 포장용 인쇄지기 및 지가공 설비류, 제약·화학품·제과, 식음료 등 포장공정 기계류, 각종 포장재 생산기계, 환경대응형 포장재 생산기계 및 기술, 포장물류관련 설비 등으로 최신 제품들이 경연을 벌였다.

특히 전시기간에는 (주)홍이기업의 'PVDC필름 및 내인습성 필름에 대한 고찰', 남경포리머의 '분해성 포장재의 필요성과 환경관련 규제대책' 등 관련 세미나가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월간 포장산업은 첫날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포장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남경화학, 성안기계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가졌다.

한편 한국포장협회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협회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월간 포장정보를 배포하는 등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며, 한용교 회장은 중국 포장협회 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한·중 포장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LOGIS-TECH 94 물류혁신세미나 개최

일본 성공사례 위주로 국내 물류의 방향제시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회(회장 안태호)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LOGIS-TECH 94 국제물류전 기간중 물류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물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물류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제화에 부합된 LOGISTICS를 구현한다는 취지 아래 국내외의 물류전문인을 초빙하여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첫째날에는 물류 LOGISTICS 전략과 성공사례이며, 둘째날에는 물류센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세계 각국에서 로지스틱스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로서의 국내 기업물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게 된다.

물류비 지난해 14.4% 늘어

한신경제연, 제조업체 조사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지출되는 물류비가 계속 늘어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제조업체 375개사가 지난해 지출한 물류비는 92년보다 14.4%가 증가한 2조9백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11.7%에 그쳐 물류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의 1.9%에서 2.0%로 늘어났다.

항목별로는 보관비(68억원)와 포장비(670억원)가 각각 92년보다 32.8%, 8.2% 감소한데 비해 운반하역비는 2조1백98억원으로 15.7%가 증가했다.

이는 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으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물류비를 지출한 업체는 포항제철로 2,416억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이 유공(1,147억원), 쌍용양회(975억원), 삼성전자(683억원) 등이었다.

제품단가에 비해 물량이 큰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업체의 물류비 지출이 높아 한라시멘트는 전체 매출액의 18.2%를 물류비에서 지출했고 현대시멘트(15.7%), 한일시멘트(15.2%), 성신양회(14.5%)도 물류비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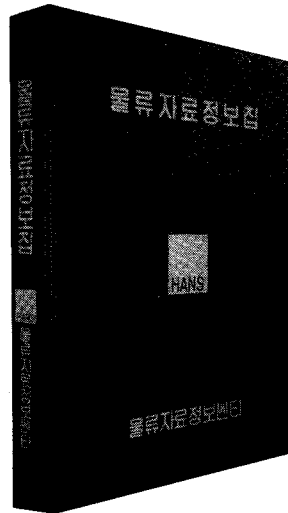
한상원 물류자료정보센터 사무실 이전

물류자료정보집 매월 제공

한상원물류자료정보센터(소장 한상원)는 물류관련기사를 스크랩하여 매월 물류자료정보집을 발간하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물류에 관한 자료가 절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많은 물류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한편 강남구 역삼동 성지오피스텔 913호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 것을 계획하고 지난 5월 14일 사무실 이전 기념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전화: 562-7792, 7791).



◀ 한상원 물류자료정보센터에서 매월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물류자료정보집

전자동 취출로봇 수출

유도스타, 미국 등 120대

자동화기기 전문생산업체인 유도스타자동화(대표 유영희)가 전자동 취출로봇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한다.

유도스타는 수출주력 모델로 전자동 취출로봇을 지난해말에 개발, 올들어 국내 럭키금성상사와 일본의 나가세 등 외국상사를 통해 6월말까지 이 제품 120대(100만달러 상당)를 동남아,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한다.

서보모터를 장착해 전자동으로 제어되는 이 제품은 7~8kg의 대형 사출물을 가공하는 사출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자동차 및 대형 가전제품 공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 취출로봇에 대한 반응이 좋아 성능이 뛰어난 여러가지 용량의 제품을 생산, 연말까지 3백만달러어치의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현재 소형, 중형, 대형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상사원들에게 관련정보를 교육시켜 애프터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도스타자동화는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취출기 업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이달초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국제플라스틱쇼에 제품을 출품키로 했다.

유도실업이 일본의 스타세이키와 51대49의 합작 비율로 92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연말까지 저가적 고기능의 소형취출기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적극적인 제품개발로 올해 수출을 포함,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자동연속 이송식 라벨러 국산화

신명공업, 속도조절 자동으로

무학그룹 계열사인 신명공업(대표 최재호)은 롤 라벨러를 국산화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신명공업이 개발한 롤 라벨러(모델명 SRL-750R)는 연속 라벨 이송방식을 채택, 컨베이어로 기계내에 용기가 연속적으로 옮겨지면 라벨이 용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공급된다.

라벨진입량이 많으면 속도를 늦추고 적으면 속도를 빠르게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기계내에 들어온 라벨은 절단장치로 이송돼 물위의 라벨로부터 1장단 위로 잘려 분리된 후 위치보정드럼에 진공방식으로 흡착된다.

이 라벨은 메인드럼으로 옮겨져 풀이 붙여진후 용기와 만나 라벨링이 이루어 진다.

해태 천안공장 소각로 완공

민성, 시간당 2.2톤 처리

민성소각로(대표 정상균)가 해태제과로부터 수주받은 소각로를 완성했다.

민성소각로는 해태제과 천안공장에 20억원짜리 소각로 건설을 완료,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소각로는 6개월간의 공사끝에 완공된 것으로 처리용량은 시간당 2.2톤(폐기물 1.4톤, 슬러지 건조 0.8톤)이다.

과자생산업체인 해태제과는 이번 소각로 건설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반품 폐기물 등의 산업용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어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크게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소각로는 폐합성 수지류의 고발열성 폐기물과 저발열성 폐기물인 폐수 슬러지간의 상호 발열량을 보완,

최적의 소각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민성소각로는 일본의 소각로 전문제작업체인 다이토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다.

태양산업 알루미늄공장 설비

포스콘, 턴키베이스 수주

포스콘은 태양산업(주)이 충남 천안에 건설하는 알루미늄 공장의 주요설비를 턴키베이스로 수주했다.

포스콘은 포철의 자회사로 MEIC(전기기계, 계장컴퓨터)를 주로 생산하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다.

포스콘이 태양산업으로부터 수주한 설비는 연산 5만톤 규모의 알루미늄 냉간압연설비와 연속주조설비로 자체 설계한 설비본체와 전기 계장컴퓨터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시운전 및 조업기술지도까지 일괄 수행한다는 조건이다.

정유설비 수주전 치열

플랜트업체, 정유사 증설로

한국중공업·대림산업 등 국내 플랜트관련 업체들의 정유설비 수주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정유5사의 각종 설비투자가 올해 집중되어 전례없는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의 증설투자는 유공이 1조원, 쌍용정유가 7천억원 등 업체마다 투자규모가 크고 발주설비도 원유분해설비·중질유분해설비·탈황설비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국내 최대의 플랜트업체인 한국중공업은 유공의 중질유분해시설 발주를 비롯, 각종 정유설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중은 정유설비 수주 전담팀 구성은 물론 해외업체와의 기술협약을 통한 관련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정유설비중 규모가 큰 가압용기·증류탑·열교환기 등 핵심설비를 주로 겨냥하고 있다. 한중은 세계최대 규모의 주단조 설비를 보유, 이를 이용한 대규모 정유설비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정유관련 플랜트생산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발전사업 이외의 분야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계열사인 대림엔지니어링과 함께 나선 대림산업은 해외에서 유전개발 및 정유관련 사업에 경험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호남정유의 증설사업을 주도하는 등 활

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현대정유의 설비증설을 기본 일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설비구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 폴리에틸렌 반덤핑 판정

대만, 국내 5사 제품에 과징금

대만은 5개 한국회사가 수출한 고밀도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5개 한국회사들은 삼성종합화학·현대석유화학·한양화학·유공·력키 등이다.

대만 행정원은 4월 25일 대만 최대의 폴리에틸렌 제조회사인 'USI파이스트'의 제소를 검토한 끝에 이들 한국 회사들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USI간부들은 한국회사들이 폴리에틸렌을 한국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팔고 있어 이같은 반덤핑 제소를 지난 92년8월 대만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한국회사들은 대만의 석유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이번 결정에 따라 2.5%의 관세와 아울러 4.17~9.45%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코오롱 유통업 진출

'다마트' 슈퍼체인 구축

코오롱그룹이 지난달 6일 '다마트'란 상호로 직영수퍼마켓을 개설,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상사는 서울 잠원동 대림상가내에 매장면적 250평 규모의 직영수퍼마켓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유통업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점포는 코오롱이 앞으로 자영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종합도매 물류사업의 모델점으로 운영된다.

코오롱은 올해안에 이같은 점포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2~3개정도 추가 개점하는 한편 상반기 안에 가맹점 모집에 나서 전국적인 슈퍼체인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코오롱상사는 다음달 완공목표로 수원시 원천동에 2백여원을 투자, 연건평 5,000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종합물류센타를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거점별 대규모 물류센타를 잇달아 개설할 방침이다.

크린켈, 중국에 합작공장

운영과 생산담당, 300만달러 투자

식품포장 필름업체인 크린켈(대표 전병수)이 중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한다.

크린켈은 중국의 북경식품공업집단과 합작, 북경에 포장필름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공장을 설립기로 했다.

합작비율은 50대50으로 크린켈 측이 운영 및 생산을 담당하고 중국측은 현지판매를 맡게 된다.

공장부지는 북경식품공장 부지내에 건설하고 크린 측은 300만달러를 투자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합작사인 북경식품은 중국전역에 52개의 방개회사를 거느린 종업원 13만명의 거대기업이다.

크린켈은 이미 중국에서 LDPE켈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어 기술료도 투자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국제기 상승이 해외시장 겨냥

유화업계, 물량확보 비상

대림산업, 유공 등 석유화학업체들이 내수가에 비해 최고 톤당 50달러까지 비싸게 팔리고 있는 해외시장을 겨냥, 수출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공급부족으로 국제기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내수가는 정부의 물가억제로 동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업계의 수출편중이 자칫 국내 수급차질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분야 3대수출품목인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의 동남아 가격이 지난 한달동안 톤당 10~40달러가 뛰면서 내수가와 최고 50달러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PP의 경우 사출용의 홍콩가격(C&F기준)이 40달러 상승, 내수가 40만원에 비해 50달러(운임제외)나 비싼 톤당 580달러선에 이르고 있다.

범용인 사출용 HDPE도 50달러로 10달러 상승, 내수가에 비해 40달러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LDPE수출가도 내수가보다 20달러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화승실업 아산공장 증설

OPP필름 연3만톤 생산

화승실업(대표 서진석)이 OPP필름 생산능력을 크게 확충한다.

이 회사는 모두 180억원을 들여 충남 아산공장에 OPP생산라인 1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3천평규모의 공장증설에 나서 빠르면 연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라인증설로 화승은 OPP필름 연산능력이 2만톤에서 3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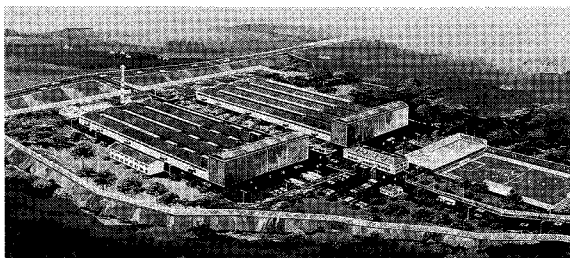
회사측은 일본 미쓰비시사에서 필름제조설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증설로 화승실업은 OPP필름부문에서 내년에는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설분은 미국, 동남아, 중국 등의 수출물량으로 돌릴 계획이다.

OPP필름은 PP(폴리프로필렌)를 원료로 만드는 것으로 섬유포장용, 식품포장용에서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89년 사업다각화를 위해 필름사업에 뛰어든 화승실업은 지금까지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필름사업부문을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한편 케미컬 전문업체로 성장한 화승실업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중 신발부문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화승실업이 95년에 최종 완료하게 될 OPP필름공장 조감도

유럽에 'SM' 대량수출

대림, 국제가 연동따라

대림산업(주)(대표이사 성기웅)이 고가로 폴리스티렌(PS)의 중간원료인 스티렌 모노머(SM)를 유럽지역에 대량으로 수출하고 나섰다. 석유화학 중간원료가 유럽에 수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국제가에 연동시키는 조건으로 SM 1만톤을 수출하기로 미국 엔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톤당 6백달러(FOB기준)에 2천톤을 스페인, 로테르담 등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유럽지역으로 내보냈다.

이 가격은 지난해말의 485달러에 비해 무려 115달러(23.7%)가 오른 것이다.

대림산업은 이달말께 추가로 2천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유럽의 수급상황이 계속 빠빠해지고 있어 수출가격이 톤당 630~640달러에 이를 것으로 대림측은 전망하고 있다.

유화제품 수출가 오름세

에틸렌 등 11~25%올라

주요 유화제품의 수출값이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큰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4~5월 집중된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의 정기보수 기간이 맞물리면서 이들 제품 생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국내 가격도 이달들어 5~8%가량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5월들어 동남아 수출가격은 톤당 295~300달러로 4월보다 35~40달러(최고 15.4%)가 올랐으며 올 연초의 톤당 240달러에 비해서는 25%정도 올랐다.

유분을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도 이달들어 고밀도 폴리프로필렌(HDPE)이 지난달 톤당 560달러에서 30달러 오른 590달러에 수출되고 있으며, 폴리프로필렌(PP)도 4월의 560달러에서 580달러로 3.6%가 추가인상 됐다.

HDPE와 PP의 5월 수출가는 연초에 비해 13.5~11.5%가량 오른 것이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도 이달들어 20달러가 오른 톤당 580달러에 수출되는 등 올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가격 또한 대림산업과 한양화학·러키·삼성종합화학 등 주요 유화학업체들이 범용 HDPE와 PP의 값을 지난달의 톤당 37~39만원선에서 40~42만원선으로, LDPE는 51~53만원선에서 52~55만원선으로 품목에 따라 5~8%올려 판매하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미국내 에틸렌공장 가동율이 높아져 에틸렌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일본 유화학업체들이 엔강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데 영향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년동안 극심한 공급과잉 상태였던 국제석유화학시장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급구조의 개선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유화제품의 국제가가 이처럼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주요 수입시장인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들어 가던 선진국 제품이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 영향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재의 가격도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가격이 더욱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우레탄수지 FDA서 승인

선경인더스트리, 안정성 인정

선경인더스트리가 개발한 건조식품 제조공정용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수지가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안정성 승인을 받았다.

선경인더스트리는 이 제품이 건조식품 제조공정용 컨베이어 벨트제조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안정성 승인을 신청한 후 10개월만에 합격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경인더스트리는 이 제품이 기존 PVC제품보다 내마모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밝히고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는 세계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수지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폴리에틸렌 등 주요 합성수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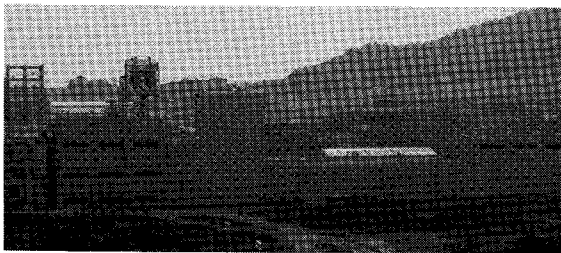
수요급증·원가상승에 따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톤당 3만~5만원씩 평균 8%인상됐다.

대림산업, 한양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달부터 범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중전 톤당 37만~39만원에서 40만~42만

이축연신 나일론 필름설비 증설

코오롱, 연산 5,000톤 생산규모 갖춰



▲ 코오롱은 최근 나일론 필름 2공장 증설을 완료, 기존 생산량을 포함 모두 5,000톤의 연산규모를 갖추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주)코오롱(대표이사 하기주)이 김천공장에 연산 2,600톤 규모의 이축연신 나일론필름 제2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기존 생산량을 포함 모두 5,000톤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지난 90년 국내 최초로 동시 이축연신 나일론 필름을 개발하여 91년에 연산 2,4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나일론필름을 국내에 공급해 왔다.

(주)코오롱은 총 150억원이 투입된 이번 증설을 통해 해외 나일론 필름생산업체와 경쟁하여 수출을 본격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생산량의 약 50%인

2,600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97년에는 4,000톤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며 증설 완료시 일본의 UNITIKA, TOYOBO에 이어 세계 3대메이커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코오롱은 나일론필름의 원료인 나일론필름 레진을 지난 92년부터 전량 자체 생산·수급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 대체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축연신 나일론필름은 1960년대말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후 지금까지 일본 메이커들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플라스틱 필름으로서 뛰어난 기계 차단성을 비롯한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내열, 내한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포장용에서 공업용필름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94년 세계 나일론 필름메이커 연산능력

구 분	생 산 능 력
UNITIKA(일)	18,500t
TOYOBO(일)	11,800t
SNIA(이태리)	10,000t
KOHJIN(일)	7,200t
MITSUBISHI(일)	7,000t
KOLON(한)	5,000t
QLLIED SIGNAL(미)	4,200t

원,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51만~53만에서 52만~55만으로 각각 인상했다.

유화업계가 지난 4월 가격을 10%이상 올렸다가 상공자원에서 물가인상 유발을 이유로 환원조치 한지 한달만에 다시 올린 것은 경기회복에 수요급증 원가상승, 국제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호남유화, 내달부터 에틸렌 감산

다른 국내업체도 뒤따를 듯

호남석유화학(대표 정배영)이 이달부터 에틸렌 감산에 들어가면 대림산업, 한양화학, 삼성종합화학 등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유화업계는 올해초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올레핀은 2년간에 걸쳐 80일,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은 각각 80일과 70일간 가동중단기로 합의했으나 세부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립6주년기념 '한마음제전' 개최

삼성종합화학, 임직원·가족 등 화합한마당

삼성종합화학(대표 황선두)은 지난달 15일 충남 대산유화단지에서 임직원 및 가족, 협력사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6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제전' 행사를 가졌다.

삼성그룹 신경영 실천의 원년, 창립기념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경영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이날 행사는 1부 입장식과 2부 체육대회, 3부 연예인이 참가하는 축하공연 및 사원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되어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가 하나로 어울어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한편 삼성종합화학은 지난달 17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대산단지에서 창립기념식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와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사원가족, 고객사,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참가한 성화문예콘서트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창립19주년 기념행사

유동, 장기자랑 등 화합다저

유동기업(대표 장기주)이 지난달 14일 창립 19주년을 맞

아 기념행사를 갖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유동기업은 인천 송도유원지내 야외음악당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열었는데 이날 전체 게임, 장기자랑, 단체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안산 포장사업부내 식당에서 포장사업부 전 직원과 세라믹사업부 임직원, 서울사무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갖고 장기근속사원 및 모범사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시상자는 장기근속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세라믹사업부 박종상 대리외 12명이며, 이상근씨외 4명이 모범사원으로, 포장사업부 김병준(생산1팀), 이명자(생산2팀)씨가 상공회의소 소장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국제포장전시회 열려

엠발라제 '94, 파리서 11월14일부터

제31회 프랑스 국제 포장 전시회인 EMBALLAGE 94가 1994년 11월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PARIS-NORD VILLEPINTE 국제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총 면적 9만평방미터의 전시장에 포장산업의 전반적인 설비자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이번 전시회는 출품업체별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짜여진 전시관을 통해 전 세계 바이어를 위한 효과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다.

약 2500여개 업체가 참여하게 될 이번 EMBALLAGE 94는 140여개국에서 온 방문객들과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비즈니스 상담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주요전시 품목은 원료, 포장과 용기, 포장기계, 인쇄기 등이다.

미국 포장물류 무역방문단 내한

이달 20일, 기계업체 11사 대표

미국포장기계협회(PMMI :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Institute)의 마케팅 담당자인 Andy Benson씨를 비롯하여 한국 시장의 신규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11개 회사 대표가 이달 20~21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방한을 통해 수입대리점, 기술 제휴 또는 합작투자 등에 관심있는 한국기업과의 상담을 가질 예정이며, 한편 식품·음료·의약품을 대표하는 기관, 포장기계 및 관련산업을